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두산 강영성 공인석 김경상 김순석 김창환 김창길 문영원 박권제 방석대 성미영 이윤희 이근자 이창규 이호준 장영원 정경석 조규영 조옥자 채희춘 최상길 최순재 최정규 황상근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두산 강영성 김기택 김명숙 김순석 김희규 박권제 배세영 여운희 윤영준 이근자 이명희 이선분 이월숙 이정순 임형문 장영원 최봉순 최성현 최순재 루디아여전도회 베드로남전도회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이필래 권세안 김경엽 김규찬 김병을 김수자 김숙자 김중익 김현구 문수경 박부웅 박순자 박지순 박춘자 방복순 심순옥 윤정호 이기자 이명원 이미자 이월숙 이향교 이호숙 임형문 전순봉 정용식 채영업 최상길 최선미 하세현 루디아여전도회 무 명 유초등부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준주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설아 이소은 이송애 이옥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정승현 정숙순 전지선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 월정현금

김두산 맹관순

주간 성경연구

2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예레미야 19장 1절 ~ 15절		
월요일	예레미야 20장 1절 ~ 6절	목요일	예레미야 21장 8절 ~ 14절
화요일	예레미야 20장 7절 ~ 18절	금요일	예레미야 22장 1절 ~ 9절
수요일	예레미야 21장 1절 ~ 7절	토요일	예레미야 22장 10절 ~ 1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래		
	주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쉼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열 이성옥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인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선교사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6. 16. 주일 예배 설교	예수님이 여시는 구원의 문
마가복음 7장 24-37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구원은 잘나가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은 작고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넓게 열려있음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강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숨겨져 있는 반면 오히려 강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열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활짝 열려 당당하게 입성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시는 구원의 문은 어떤 자들에게 열렸습니까?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딸의 귀신들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이방여인이었습니다.

1.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 본문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딸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마태는 그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북쪽으로 이주한 가나안 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비옥한 토지와 무역을 통하여 일찍이 부를 축적하고 또 헬라문화를 빨리 받아드려 헬라 말을 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으로 지금은 수리아 베니게에 거주며 헬라 말을 쓰는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열시와 천대를 받았고, 또 유대와는 먼 수리아에 거하는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딸의 귀신들린 병을 고칠 것이라 믿고 딸의 귀신들림을 고치고자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음해하고 시험하며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이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다시 말해 물질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다윗왕국의 영광을 이룰 독립운동가, 혹은 정치가로 여겼고, 그저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여의 역사와 같이 배불리 먹게 하실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람게도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순수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25-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밤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 했습니다.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더욱 확실하**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리니”라는 헬라어는 “프로스키펙토”라는 단어인데,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은혜를 얻고자함으로 주인의 발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내며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헬라어는 “에로타오”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구걸하듯 간청하고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 딸의 문제를 해결 받고자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느 유대인이 자신을 대할 때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도 똑같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먹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자녀로, 이방인은 개들로 표현하며 그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간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간절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어 보이는 유대인, 그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지만, 예수님은 부스러기 정도로 그 여인을 만족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로 비유되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구원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이 열린 자가 누구일니까?

2. 귀와 입이 닫힌 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은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분명하게 말할 수도 없었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중심에는 **“에바다.”**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는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청각이 회복되었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열린 것은 귀와 입뿐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탄이 адам 이후로 막아 놓은 그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외치셨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사람의 육체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 놓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에바다.” 바로 이 외침 한번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인 “에바다.”는 사람을 향한 선편포고였고, 마침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겠지만, 사탄이 죄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CE 1975

No. 45 - 25

2019. 06. 2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입문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총회주일

[1부] 오전 7시	사회: 강 영 성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다 갈 이
찬 양	찬송가 453(통4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Praise)	다 갈 이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장 윤 주 집 사
(Prayer)	[3부] 강 영 성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8장 1~13절[신약P.66] 박 순 자 권 사
(Scripture)	[2부] 사도행전 16장 6~10절[신약P.215]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홀로 영광 받으소서[홍지열]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으라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답안지 가지고 문제 풀기[?]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30(통456)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Praise)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최 성 현 장 로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시편 25편 14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421(통210)장 다 갈 이
기 도	내가 예수 믿고서 흥 정 훈 집 사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신약 P.329]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전도에 대한 열심 김 제 호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505(통268)장 다 갈 이
축 도	온 세상 위하여 김 제 호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곽정순권사] 이 옥 남 권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3장 13~14절[신약P.209] 인 도 자
설 교	선교단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벨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벨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총회주일]**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이면, 1년에 한 번 헌금하는 것으로 총회발전과 교육, 국내전도, 선교, 복지, 은금, 출판 및 센터운영,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6/28) 금요기도회는 “바울남전도회” 주관으로 합니다.
- **[대신자전도]**
상반기 대신자 전도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정한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일은 6월 30일(주일)입니다. 처음 오신 대신자들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을 드립니다.
- **[서울남노회 장로회]**
제35회기 제2차 월례회가 27일(목) 오후 5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단원모집]**
아래와 같이 제 5기 주니어셀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초등학교 1학년 이상(주일학교 학생) ◦연습시간: 매주일 오후 1시~1시 35분
◦문의: 박진숙 집사
- **[여름행사 지원]**
여름행사(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티셔츠 구입헌금을 하오니 초원별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각부서 여름행사에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름행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망부 방학]**
소망부는 6월 29일(토) 여름방학을 하여 9월 21일(토)에 개학을 합니다.
- **[다니엘 기도회]**
7월 1일(월)~21일(주일)까지 3/4분기 다니엘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교사강습회]**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강습회가 7월 7, 14,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진행됩니다. 각 주일학교 교사 및 봉사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행사 안내]**
6월 23일(주일) **총회주일**
6월 27일(목) **서울남노회 장로회 월례회**
6월 30일(주일) **대신자 초청 주일**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찬양위원회월례회	

교우소식

- 故 김도진 집사(사랑2/개봉2) 이윤자 집사 부군 16일 소천, 18일 장례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담임목사	황영현 집사	박복례 권사 송부현 집사 김영진 권사	강영성 장로	민음2 부천 묵동 일산	한나 여전도회
떡, 수박	김판수 목사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모친 장례).					
다음주	오서윤 어린이	오재윤 어린이	강영성 장로 신화순 권사	김병을 장로	소망1 고척 1,2,3	드보라 여전도회

6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22주(2일)	김경업 집사	최성현 장로	박금옥 권사	임만순 장로	장윤주 집사	강은미 권사	
	23주(9일)	최상걸 집사	윤영준 장로	이강우 권사	김병을 장로	최귀남 권사	민옥희 권사	
	24주(16일)	박종삼 집사	윤조훈 장로	이근자 권사	박권제 장로	최상걸 집사	황영옥 권사	
	25주(23일)	장윤주 집사	강영성 장로	박순자 권사	최성현 장로	홍정훈 집사	이옥남 권사	
	26주(30일)	유현호 집사	김병을 장로	강은미 권사	윤영준 장로	유현호 집사	곽정순 권사	
	예배안내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